



정교회주보

제2500호

2024.11.24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세계의 정교회 수도원> 신학자 성 요한 수도원(사진)은 1088년 그리스 파트모스 섬에 세워진 수도원이다. 이곳에 2년여 동안 유배되었던 성 사도 요한 신학자가 묵시록을 썼던 장소에 세워졌으며,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던 동굴 근처에 있다. 수도원은 해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높은 성벽으로 요새화되었다.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루가 제 13주일
성 클리멘트 로마 주교
(제5조 • 조과복음 11)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5조 부활 찬양송 82
 - 성모 입당 축일 찬양송 204
 - 성당 찬양송
 - 성모 입당 축일 시기송 204
 - 사도경 : 갈라디아 6,11~18 (봉)303
 - 복음경 : 루가 18,18~27 131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미흡한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 뒤 ...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마르코 16,12)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분을 알았던 이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하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즉각 알아볼 수는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무덤 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로만 압니다.(요한 20,13-16) 고기를 잡던 사도들은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하고 말하기까지는, 호숫가에 서 있던 이 낯선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요한 21,4)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분의 육체적 현존이 부활 이전처럼 어떤 지점에 위치하여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길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정교회출판사] 중에서

“거룩한 성모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어떤 사람들은 정교회 예식에서 “거룩한 성모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들을 때, 이것이 교리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구원하다’는 동사가 기본적인 의미 외에도 부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먼저, ‘구원하다’의 기본적인 뜻을 살펴보면, 구원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히브리서 5,9). 왜냐하면 “이분에게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으며,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밖에는 없”(사도행전 4,12)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하다’라는 동사는 부차적인 의미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협력하다,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뜻도 가집니다. 따라서 이 동사를 어떤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돕거나 협력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죄인이나 불신자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세상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서에는 동사 ‘구원하다’를 부차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도 바울로는 유대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동족 유대인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켜 그들 가운데 일부나마 구해주고

싶습니다.”(로마 11,14) 이는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로가 유대인들의 구원자이자 구속자였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오직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께로 단지 그들을 인도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2. 바울로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들처럼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중에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한 것입니다.”(1고린토 9,22). 이는 또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로 자신이 직접 그들을 구원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희생을 통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도록 이끌겠다는 의미인가요?

3. 또한 바울로 사도는 믿음이 없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헤어지지 말라고 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 된 이여, 그대가 자기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며, 남편 된 이여, 그대가 자기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1고린토 7,16 참조) 이는 무슨 뜻입니까? 바울로 사도는 믿음이 있는 배우자를 구원자로 보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지 그들을 상대방, 즉 믿음이 없는 배우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이끄는 협력자이자 도구로 본다는 뜻인가요?

결론적으로, “거룩한 성모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는 올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모님께서 자신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외아들이신 그리스도께 가지신 담대한 중보의 권능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길 요청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요안니스 이스트라티 신부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예수님은 선생님께서 가르치실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를테면 간단한 설명과 진리에 대한 가르침뿐 아니라 우화(寓話: 인격화한 동식물이나 기타 사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의 행동 속에 풍자와 교훈의 뜻을 나타내는 이야기. <이솝 이야기>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한다)와 비유(比喻: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 실제적인 예를 쓰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소크라테스식의 문답법도 쓰셨는데, 이는 먼저 질문을 던지고, 그럼으로써 대화를 만들어가면서 상대방이 더 진전된 생각과 깊은 성찰을 하고 결론을 이끌어 내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루가복음과 마태오복음, 마르코복음 등에서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루가 9,18)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뒤에 예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루가 9,20)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마태오 16,16)라고 대답한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은 위대한 진리 자체이신 당시에 대해, 그리고 곧 닥칠 수난과 십자가 위의 죽음과 같은 훨씬 더 힘겨운 진실에 대해 제자들의 생각이 열리도록 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질문은 분명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곧, 우리들 각자는 예수님의 이 물음(“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 개인적으로, 각자의 이름을 걸고, 깊이 있는 대답을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균중을 따라가거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거나 동의하는 것에 의지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바로 이런 분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양구 성 안드레아 성당 축일을 축하합니다

11월 30일에 축일을 맞이하는 양구 성당 여러분께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영적 발전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주간 예배 안내

- * 11월 25일(월)
성 에카테리나 대순교자
- * 11월 30일(토)
성 안드레아 첫 사도
(서울 성당 예배 없음)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 양구 성당 철야예배

성 안드레아 첫 사도 축일 기념 철야예배가 11월 29일(금) 밤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 차량 이용, 숙소 문의는 서울 성당 사무실로 해주십시오.

알림

■ 서울 성당 '성 니콜라스 미라의 대주교' 축일 일정

오는 12월 1일 주일부터 니콜라스 성인의 성화와 성해를 성당 중앙에 모시면서 축일이 시작됩니다.

- 1일(일)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선물 증정
오찬 후, 성당 대청소 및 성탄 장식 (모두 참여)
- 5일(목) 오후 6시 15분부터: 대만과, 아르토클라시아, 행렬, 만찬
- 6일(금) 오전 9시부터: 축일조과, 성찬예배, 오찬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회

NCCK의 제73회 정기총회가 지난 18일(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대교구에서는 8명이 대표로 참석하였고,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총회 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NCCK 100주년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영성의 샘터

영원한 침묵

대 아르세니오스 사부가 병이 들었다. 그는 지상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사부님, 두려우십니까?” 그의 제자들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형제들이여, 이 두려움은 내가 수도자가 된 이래로 내 마음속에서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소.”

하느님의 위대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지혜의 입술은 영원한 침묵에 잠겼다.

